

#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2012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장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  
코엑스 HALL C, D

**설계·시공**  
(주)다원디자인

**용역범위**  
공식영점장  
정상리셉션 & 라운지  
정상오만찬장  
정상회의장

**주요마감재**  
바닥 : P-타일, 카펫  
벽 : 무늬목시트, 도장, 벽지, 그레픽시트, 페브릭  
천장 :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

**사진 제공**  
(주)다원디자인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의 회의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 2곳(16,216.4㎡)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디자인시 주요 키워드는 "Function, IT, Green & Regeneration, Tradition"을 선정했다. 회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구축되는 공간만큼 회의에 적합한 공간구조, 음향, 조명, 시인과 동선 등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宾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인시설과 부속시설간의 균형, 그리고 행사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백드롭(backdrop)과 시인 배치 등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었다.

**공식영점장** 회의장에서 각각 대통령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공간은 공식영점장이다. 따라서 한국 신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레픽 월을 조성하면서 진입거리와 사진 촬영을 위한 배경막의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능적 측면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상리셉션 & 라운지** 하나의 공간이지만 공식일정에 따라 기능이 다소 변하는 공간이다. 즉 첫째 남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둘째 남은 정상들을 위한 라운지 기능을 한다. 따라서 높은 층고로 인한 허전함과 공간의 조도 확보를 위해 구름을 모티브로 한 조명구조물을 설치하고, 가구배치와 디스플레이로 공간 기능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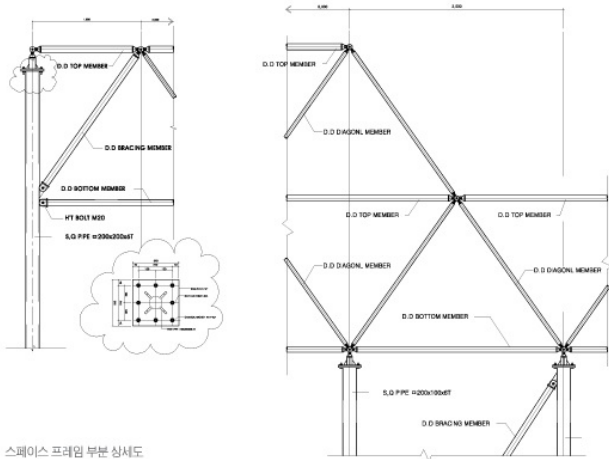
**정상오만찬장** 이동 박제와 간접등을 이용해 편안하면서 격식있는 오찬 및 민찬장이 될 수 있게 했으며, 사진촬영을 위한 배경과 행사 내용을 알리는 시인의 적절한 배치로 공간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충족시켰다.

**정상회의장**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이자 행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해 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천정 중앙에 배치한 등박스는 보름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형 테이블과 함께 회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로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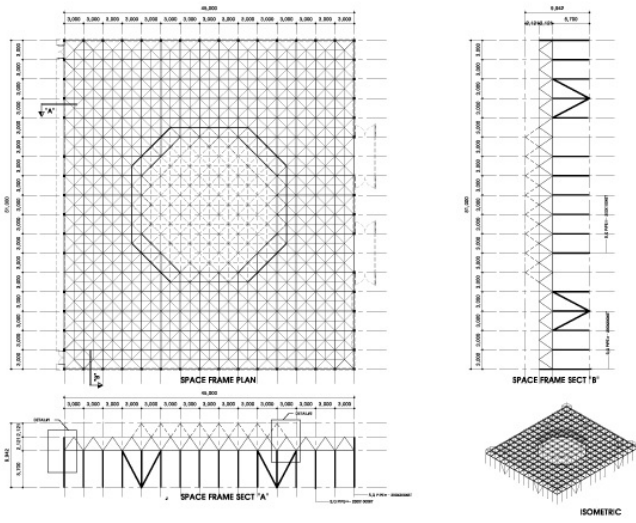
각국 대통령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공간인 공식영점장.

양지회담실.





스페이스 프레임 부분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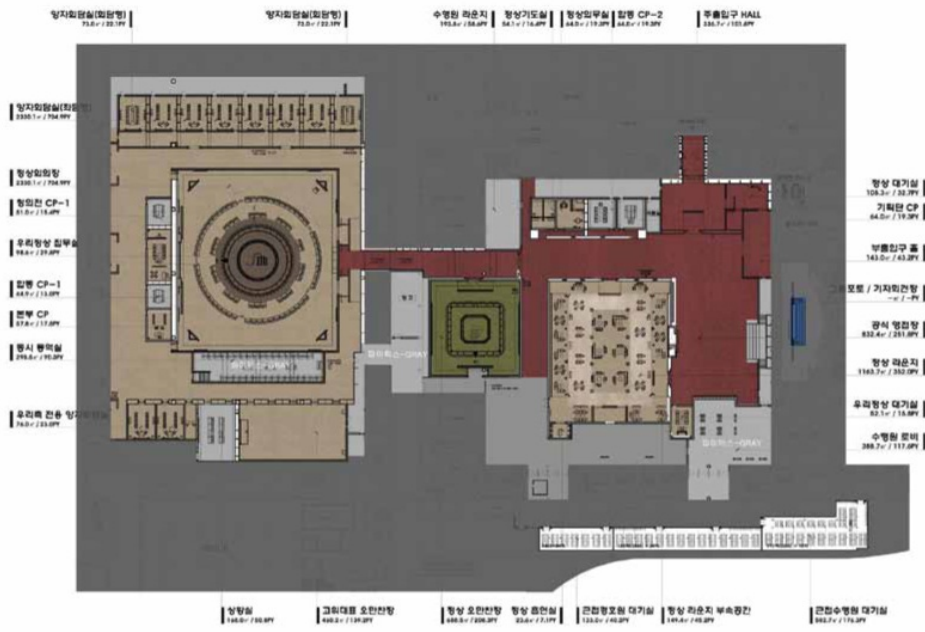


정상회의장 스페이스 프레임 평면 및 단면도



이 행사의 메인공간인 정상회의장. 스페이스 프레임을 이용해 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을 충족시킨 것이 특징이다.

핵안보정상회의장 전체 평면도



정상요원찬장.

리셉션 장소이자 정상들을 위한 리운지.





# SK G.PLANT Headquater

SK건설 G. 플랜트 사옥

<b>위치</b>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203 파인메비뉴 A동	<b>주요마감재</b> 바닥 : PIETRA SERENA 벽 : WOOD VEENER, VALCHROMAT 천장 : PAINT
<b>실내건축 설계·시공</b> (주)다원디자인	<b>사진 제공</b> (주)다원디자인
<b>설계 범위</b> 2층, 4-23층	
<b>공사 범위</b> 1층-2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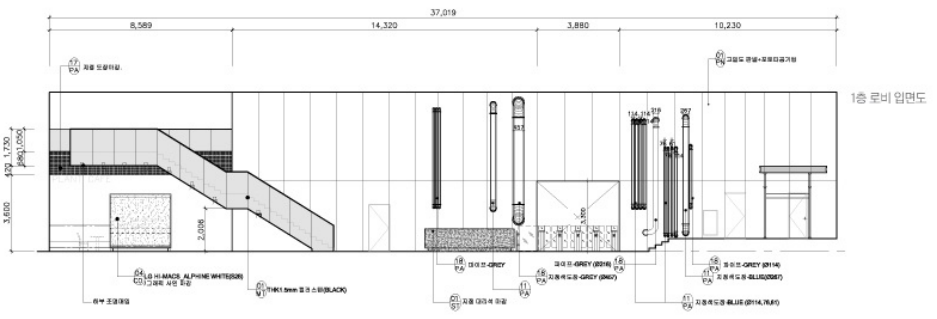
최근 신축되는 기업들의 사옥을 보면 경쟁이라도 하듯 과시적이고 화려하다. 그래서인지 SK G 플랜트 사옥은 상대적으로 단아해 보인다. 알맞은 자극하는 조미료보다 최소한의 가공으로 재료의 신선함을 살린 요리 같은 느낌이다. 이것은 디자인시 "기본으로의 회귀(back to basic)"를 출발점으로 삼은데 기인한 것으로, 여기서 "기본으로의 회귀"는 다음 3가지 전략으로 구체화 되었다.

**첫째,** 디테일이 배제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태만 사용할 것.  
둘째, 표피적인 것이나 물리적·화학적 가공을 최소화 한 낱것의 재료를 사용할 것.  
셋째, 공간의 용도와 크기를 규정하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실용성'을 기준으로 할 것.

**Raw Material**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은 재료 사용의 기본과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것이란 생각으로 이어졌다. 표피의 질감이나 무늬만을 흉내낸 부비한 재료보다 돌은 돌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재료들은 다스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광택을 내는 표면처리나 코팅을 최소화 하여 질감과 물성을 살리는 마감방식을 취했다. 또한 건물 입구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입구에는 건물과 하늘의 형태를 담은 커튼로셔의 물을 사용하였다.

**Practical Program** 프로그래밍 작업에 있어서 기준은 단 한 가지,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했다. 따라서 과시적인 목적으로 추후 공간의 용도나 운영상에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를 배제했다. 그 결과 수차례의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비, 식당, 피트니스, 업무실, 임원실 등의 공간들이 핵심 프로그램에 의해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With Right Proportion** 형태와 재료에 대한 기준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들의 조합에 대한 기준이다. 시각적 만족을 넘어 사용자에게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공간과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인체 스케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크기와 비례를 갖도록 도면과 투시도상에서 여러 차례 검증과정을 거쳐 디자인에 반영했다.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디테일로 완성했는데 그 이면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기/설비 엔지니어, 구조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와 디테일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



천장고가 75m에 이르는 1층 로비, SK건설 G.플랜트 사옥으로서 회사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메인 벽면을 플랜트 구조물을 상징하는 2D 그래픽과 그 이미지 속의 실제 파이프를 중간중간 오버랩시켰다.



직원들을 위한 입면 이미지 미팅장으로 계획된 카페테리아.



23층 리운지에 계획된 실내연못. 본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선(禪)의 공간으로 제안되었다.

# Boston Consulting Group

보스톤컨설팅그룹

<b>위치</b>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센터빌딩 30~32층	<b>설계 및 시공</b> (주)다원디자인	<b>주요 마감재</b> 바닥 : 천연대리석, 우드플로링, 폴리싱타일, BOLON 벽 : 무늬목, 페인트, 페브릭, 벽지, 파벨돌 천장 : 비닐페인트, 금속 루버, 광바리솔, 디노라인, 우드패널	<b>사진 제공</b> (주)다원디자인
<b>연면적</b> 6,821㎡			

31층 리셉션 에어리아. 보스톤컨설팅그룹은 30~32층까지 3개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고객접견 및 미팅공간 등을 아우르는 리셉션 에어리아는 열린 계단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계획되어 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이하 'BCG')은 전세계 42개국에 지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BCG의 서울오피스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전략 컨설팅회사로 발돋움하는 곳으로, 설계시 그에 걸맞은 최선의 환경을 요구하였다. ㈜다원디자인은 대외적으로는 빈세기가 넘은 회사의 전통을 담아내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3개층에 포진해 있는 각각의 공간이 기업의 가치인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예가 고객접견 및 미팅공간, 열린계단이다. 고객접견 및 미팅 공간은 리셉션 에어리아와 함께 회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공간이다. 모던하지만 자체가 갖는 거친 물성(Rustic Wood, 화강석)과 클래식한 요소로 회사의 오랜 전통과 경험을 은유적으로 담아내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게 하였다. 하나의 회사가 수직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보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셉션과 각 층의 라운지를 중심으로 3개층이 관통하는 열린 계단을 계획해 청계천을 조망하면서 이동하고 이동과정에서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5 Village Concepts & Social Hub To Each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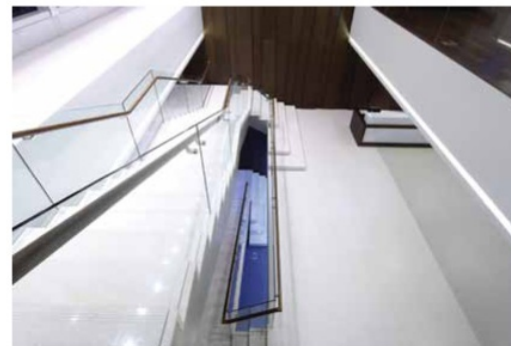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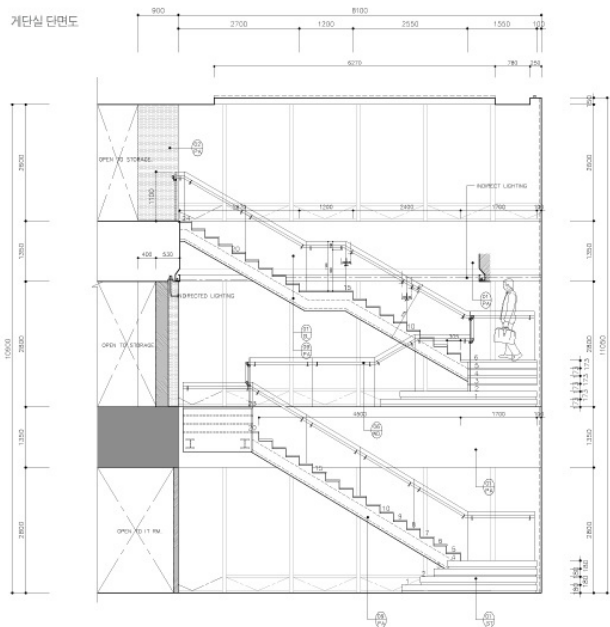
BCG의 주요 업무는 컨설팅이다. 이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공간이 집중 배치되는 31층과 2층은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컨셉으로 공간을 계획하였다. 총 5개의 "빌리지(Village)"로 구분하고 각 빌리지에는 BCG가 추구하는 5가지 가치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해석해 표현했다. 각 빌리지는 공간의 최소단위인 1인 포커스룸(Focus Room)에서 출발하지만 다양한 규모의 미팅룸, 워크벤치(Work Bench), 나이가 모바일 오피스로 확장되기에 직원들은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업무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업무공간에서 요구되는 복사(Copy)/ 전송(Fax)/ 사물함(Personal Locker) 등의 기능과 휴게공간(Break Area)은 "소셜 허브(Social Hub)" 개념으로 풀어 각 층, 빌리지의 중심으로 구성해 소통과 협업, 창의성의 점진이자 공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 Variety Seating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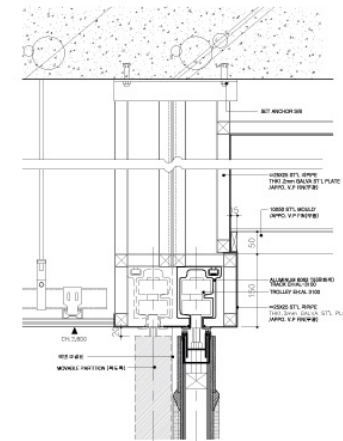
BCG 서울사무소는 포말(Formal)/인포말(Informal) 워크 스페이스, 포커스룸(1인/3인),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Collaboration Space), 오픈 미팅 스페이스(Open Meeting Space), 팀룸(Team Room)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각 공간은 프리 어드레스(Free Address)로 운영된다. 또한 라운지를 비롯한 시내 모든 공간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임무성격에 따라 최적의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선택해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1층 리셉션 에어리아에는 가변형 벽체로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계획되어 있는데 단순한 라운지 기능 이외에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타운 홀(Town Hall) 미팅룸 등 2개의 대규모 미팅룸으로 변형, 확장가능하다.



계단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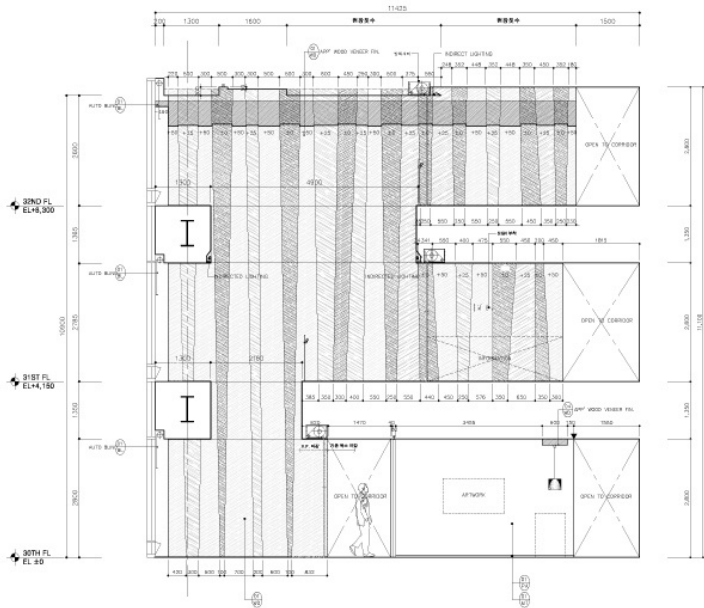
3개층을 관통하는 열린 계단실. 리셉션과 각 층의라운지를 잇는 중심공간으로 청계천을 조망하면서 이동하고 이동과정에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무빙 파티션 상부 단면상세도

무빙 파티션으로 가변성을 추구한 퍼블릭 스페이스 라운지 기능 이외에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타운 홀(Town Hall) 미팅룸 등 2개의 대규모 미팅룸으로 변형, 확장가능한 공간이다.

계단실 벽 입면도



# Seoul New City Hall Multi-hall & Sky Lounge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 홀 및 하늘광장

**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실내건축 실시업체 및 시공**  
(주)다원디자인

**공사범위**  
신청사 8~10층 (면적 : 2,382㎡)  
8층 : 로비, 다목적 홀, 시민라운지, 간담회장, 하늘광장, 화장실  
9층 : 로비, E/V 홀, 다목적 홀, 시민라운지, 하늘광장, 화장실  
10층 : 화장실, 하늘광장 및 공용부 일부

**주요마감재**  
바닥 : 원목마루, 카펫타일, 인조석, 고흥석  
벽 : 우드리브패널, 스티콘인조패널, 우드타공패널, 고흥석, 타일  
천장 : 우드패널, 페인트

**사진 제공**  
(주)다원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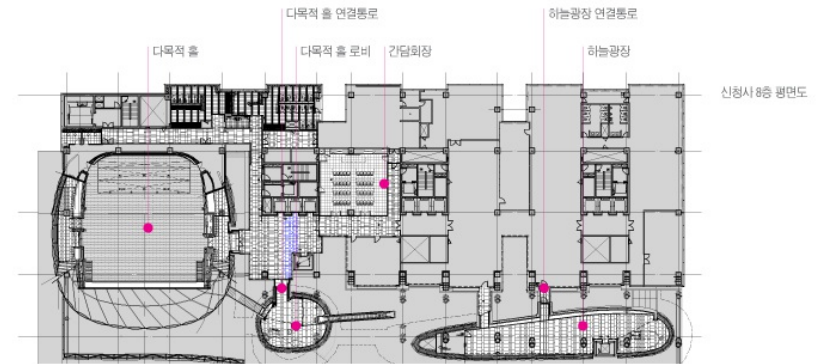
공시과정에서부터 완공 이후까지 건축비평가들에게 많이 회자된 건물 중에 서울시 신청사가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는 마치 서울시 구청사를 덮칠 듯한 거대한 파도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은 설계시 고층의 복잡한 구조물 공시를 도입되는 BIM(Building Information System)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설계는 아이마크, 건축 시공은 삼성건설(50%), SK건설(30%), 쌍용건설(20%)이 지분에 따라 구성된 JV팀이 맡아 진행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서 기존의 청사건물(본관동)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한 리뉴얼 작업은 외관 보수와 내부 시설 및 일부 마감재 교체로 이어졌다. 새로 개관한 신청사(신관동)는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연면적이 72,032㎡에 이른다. 1층은 서울광장과 연계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로비로 계획되었는데, 세계 최대의 실내 수직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은 2층에서 11층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다목적 홀과 하늘광장, 시민라운지 등이 위치한 8~10층을 (주)다원디자인이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주)다원디자인은 건물의 유기적 형태를 고려해 본 공사에 앞서 설계도서 및 샘플시공을 통해 주요 공정을 검증했는데, 막해감부터 광파게 실적을 도입하고 모든 부재는 레이저 커팅 및 절곡작업으로 용접이 아닌 조립 형태(이해하기 쉽게 프리모델 조립품 형태)로 현장 설치를 진행하였다. 마감패널은 돌출부(라운드 및 평평모양 돌출 등)의 아들이 아닌 원세트 패널을 본드와 피스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다목적홀은 4중구조의 내화·차음성능이 요구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산 차음보드를 사용하고 내진구조에 외기, 내부에 숨겨진 벽체들은 모두 용접으로 틀을 형성한 후 내외부 미감을 진행하였다. 외부는 패널에 스틸 핀 돌출 리브 물당을 면치 조립으로 완성하였다.



다목적홀 로비, 천장과 커튼월에 의해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은 부분적인 상부 오픈 공간과 보릿지가 교차하면서 다양한 시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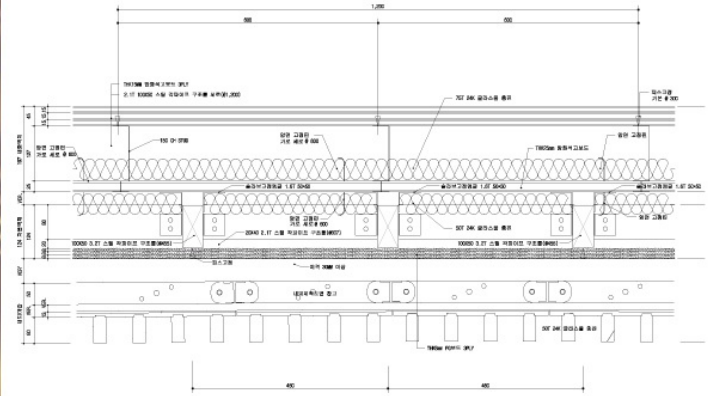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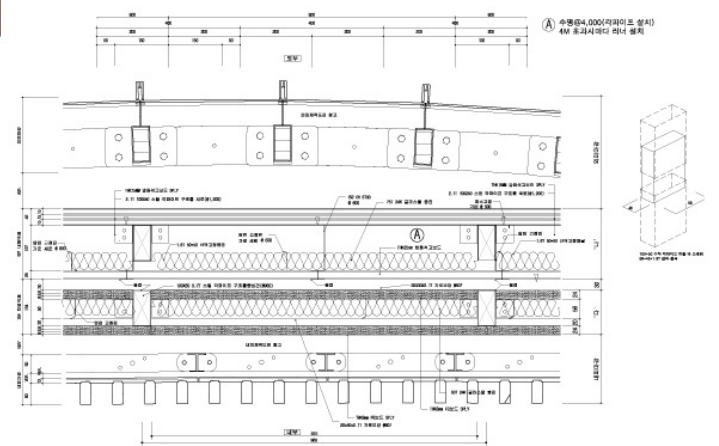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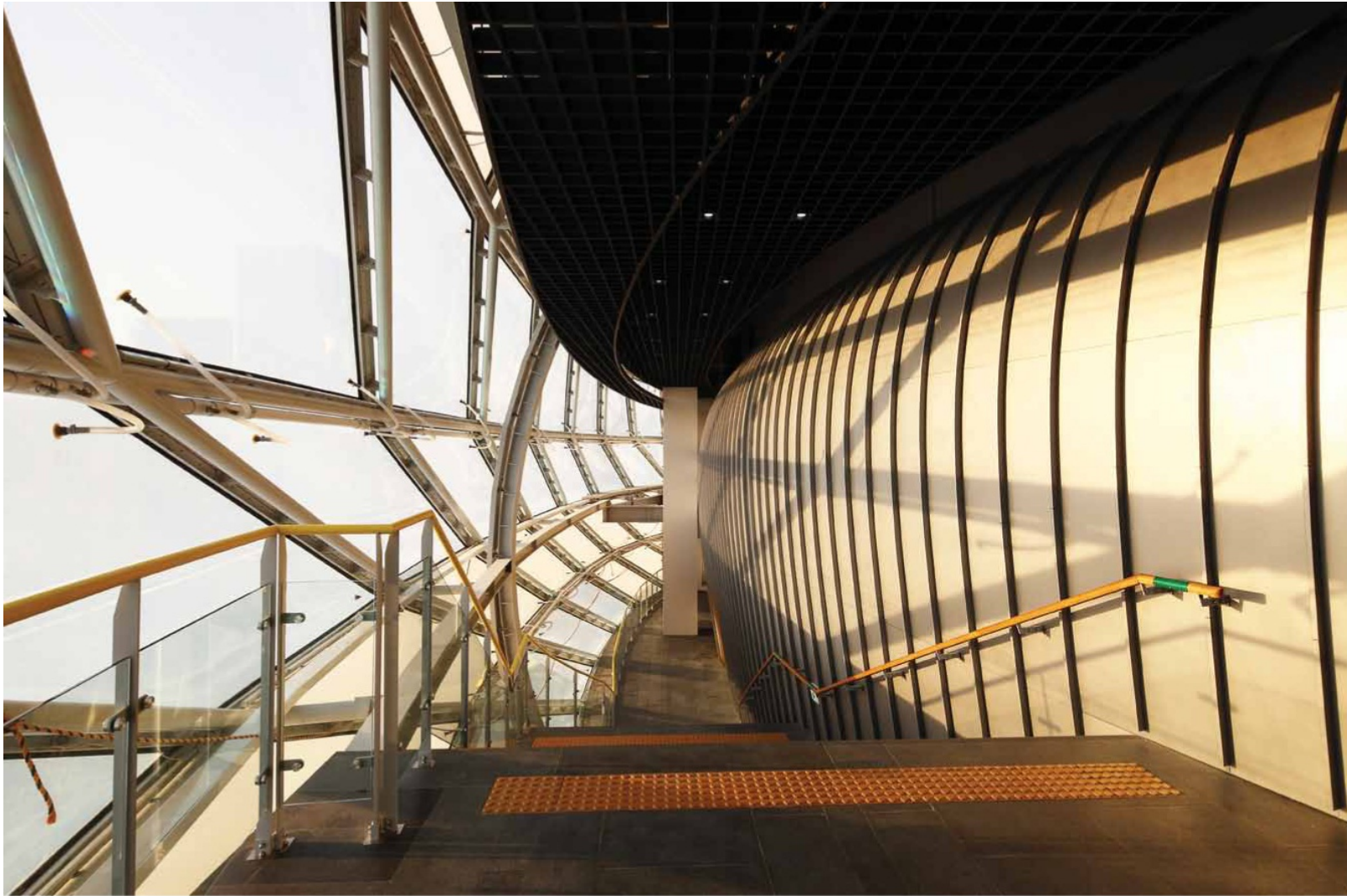
다목적홀 전경.

다목적홀 지음, 내화벽체 상세도(가 타입).



다목적홀 지음, 내화벽체 상세도(나 타입).





10층 하늘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연결통로

8층 다목적홀 로비와 오픈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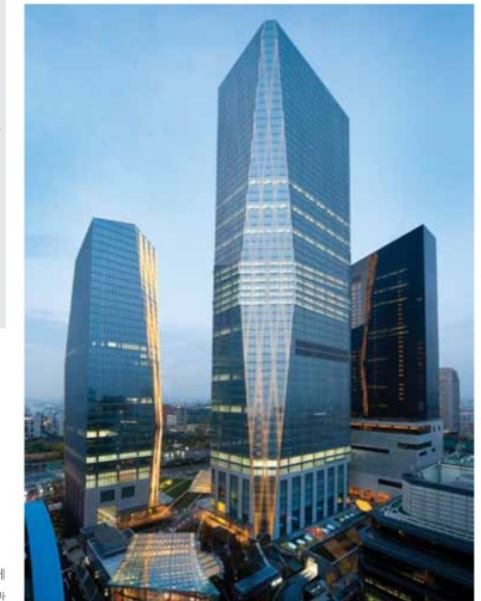
## Conrad Seoul 2~4/6/37F & Guestroom

### 콘래드 서울 2~4/6/37층 및 객실

<b>위치</b>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
<b>건축설계</b> 빔건축, ARQUITECTONICA
<b>규모</b> 지하7층 지상38층
<b>면적</b> 77,257㎡
<b>실내건축 시공</b> (주)다원디자인 : 2F All Day Dining, Italian Restaurant, 3F Main Ballroom, 4F Junior Ballroom, 6F Meeting Room, 37F Signature Restaurant, Executive Lounge (주)리쓰피엔씨 : 객실층
<b>층별 공사규모 및 주요마감재</b>
<b>2F : 3,106㎡</b> 바닥 - Stone(Black Wood, Jerusalem Gold, Hazar Pearl), Wood Flooring (Oak, Oak Snow) 벽 - Stone(Arde Sandstone, Yellow Grit), Wood(Oak, Walnut), Glass (Back Painted Glass), Wallcovering 천장 - Paint
<b>3~6F : 3F - 3,167㎡, 4F - 3,129㎡, 6F - 3,391㎡</b> 바닥 - Stone(Azul Monaco, In Grey, Gascogne Beige, Blue Limestone), Wood Flooring(Oak), Carpet 벽 - Stone(Blue Limestone), Velluto, Travertine, Granite), Wood(Afromasia, Bamboo, Walnut), Glass(Mirror, Laminated Glass, Back Painted Glass), Wallcovering, Fabric, 천장 - Paint
<b>객실층(11~36F) :</b> 바닥 - Stone(Crema "S" Gold, China Royal White, C-Black, Newbrook, Turkish Travertine), Wood Flooring, Tile 벽 - Wallcovering, Fabric, Wood, Stone(Travertine Romano, Velluto Vein), Leather, Steel(S/S Black Hairline), Paint 천장 - Paint
<b>37F : 1,373㎡</b> 바닥 - Stone(Black Dark, Basalt), Wood Flooring(Oak) 벽 - Stone(Chanel Beige), Wood(Cordia, Oak), Glass(Laminated Wire Glass), Fabric, Wallcovering 천장 - Paint
<b>사진제공</b> (주)다원디자인(pp. 272~273, 275~276), (주)리쓰피엔씨(pp. 270~271, 277~279)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은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차별화된 럭셔리(Luxury of being yourself) 호텔"을 추구한 곳이다. 로비에서 마주하게 되는 원형의 계단을 시작으로 22M 천장고가 연출하는 공간감, 그리고 서울의 타 호텔들과 비교시 큰 편에 해당하는 디럭스 룸(48㎡ 규모)과 조망권 등은 덧붙여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ALL DAY DINING과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계획되어 있는 2층 식당가는 47M의 천장고를 강조해 각 식당의 평면은 그리드로 간결하게 구성해 수평·수직의 확연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진입부 중앙에 4개의 오픈 키친(한식/중식/양식/디저트)을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요리에 대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올테이디안'은 테이블의 크기 및 배치의 다양화, 이동식 가구와 분백이 소파, 세미 오픈 공간과 프라이빗을 강조한 벨리 등 다양한 모임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 오픈 키친은 주방기구가 많이 배치되다보니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주방기구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으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감재인 금속, 유리, 대리석은 현장치수에 맞게 공장제작 후 시공하는 방식을 취한 공사구역이었다. 올테이디안 반대편에 계획된 이탈리아 레스토랑 또한 엘리베이터홀에서부터 오픈주방 카운터가 시작되어 레스토랑 홀로 이어진다. 주문과 동시에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커튼월에 인접한 홀은 천장고가 22M에 이르는 의외의 공간으로 가설비계 설치 후 공사해야 하는 관계로 시공과 인원이 일반 공사보다 많이 필요해 공기 및 공정관리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완공 후 이 공간은 자연광과 공중에 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해 독특한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호텔의 3층, 4층, 6층은 각종 연회 및 미팅에 적합하도록 제안된 층으로 그랜드볼룸과 주니어볼룸은 무빙월을 이용하여 3개의 소규모 볼룸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전체 디자인은 대칭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천장의 상투리에는 변화와 활력을 모색하였다. 연회장은 천장고가 6.5~7.0M의 천장고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공시 도어 및 무빙월 폐쇄를 일체형으로 현장반입하기가 어려워 분리, 반입 후 현장에서 조립 시공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공기나 인원의 로스가 많았던 부분이다. 확연한 전망을 내세운 '37 Grill & Bar'는 콘래드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이다. 2개의 오픈주방과 4M의 와인랙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개방된 공간감 속에 참가족 좌석에 반투명 파티션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공간 구분효과와 다소의 프라이빗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투숙객들을 위한 라운지(Executive Lounge)는 벽난로와 편안한 소파, 부드러운 조명 등으로 마치 펜트하우스 거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도록 공간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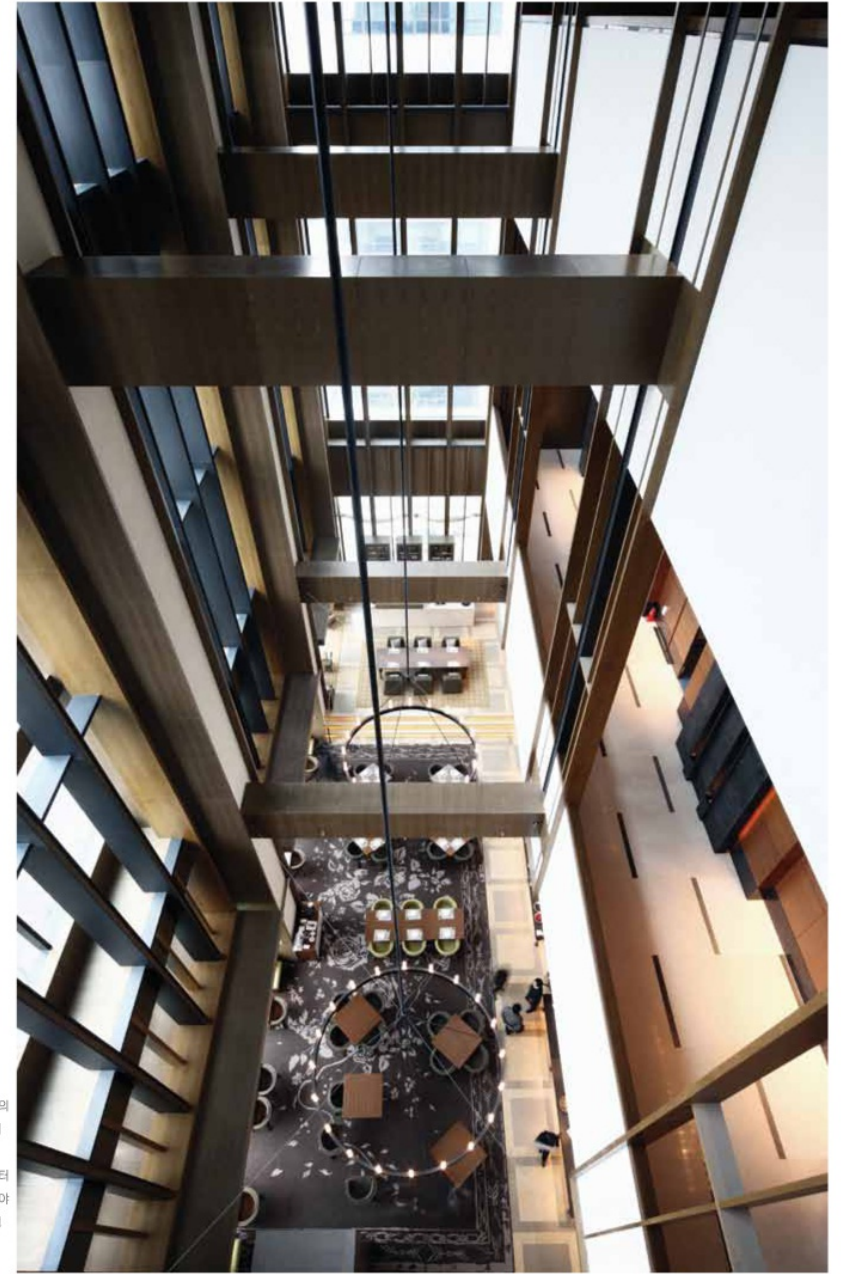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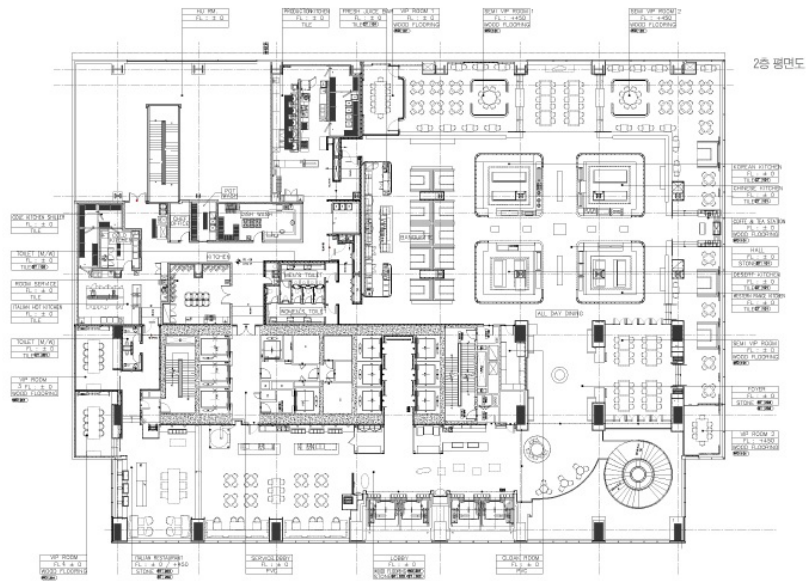
로비와 원형계단. (사진 왼쪽)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내에 자리한 콘래드 서울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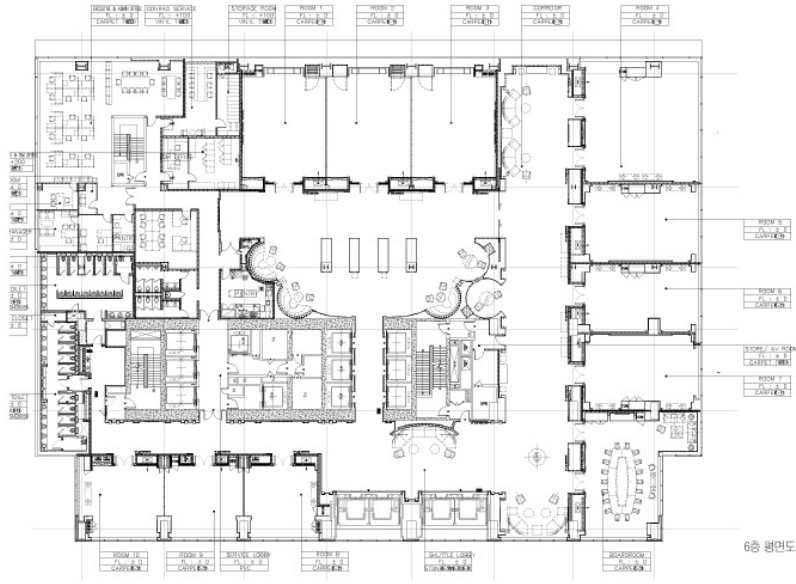


연회장층 로비(사진 위)  
엘리베이터를 전경(사진 아래)

저층 공용부위의 복로(사진 위)(사진 : 리스피엔세 제공)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오픈주방 카운터가 시작되어 레스토랑까지 이어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트리오(ATRIO)"(사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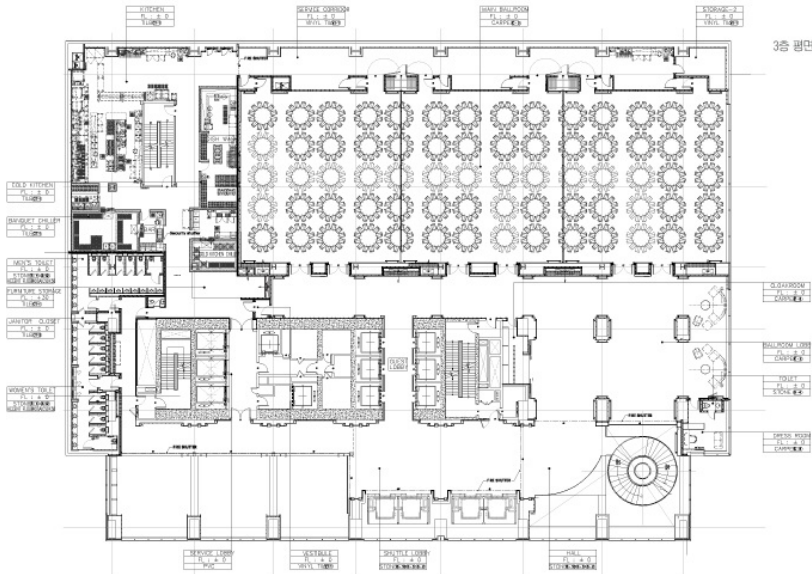
주니어볼룸층에서  
내리다본 2층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홀. 천장고가 22m에  
이르는 이 보이드  
공간은 상부에서부터  
마무리하며 완료해야  
했던 부분으로 일정  
및 공정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6층 평면도



ZM에 이르는 천장고가 그로테스크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레스토랑 홀 전경.  
낮에는 자연광이, 저녁에는 공중에 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해 독특한 공간감을 경험하게 한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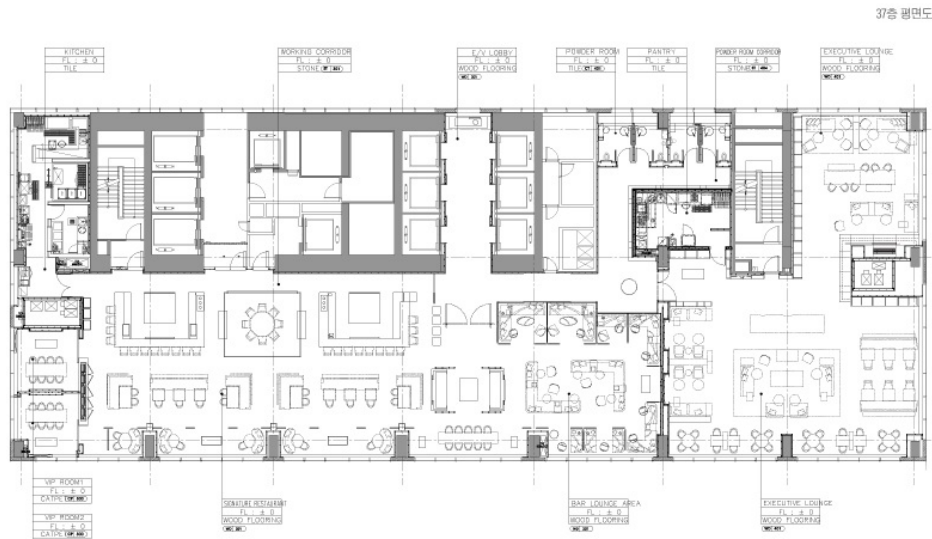


대면회장 전경. 천장고 7M의 이 공간은 브라운 계열의 컬러 배합으로 차분함을 연출한 가운데 별점을 형상화한 커펫 패턴과 천장 조명등으로 지루함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콘래드 호텔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레스토랑 "37 그릴 & 바(37 Grill & Bar)". (사진 : 다원디자인 제공)



천장고가 4.8M의 이 공간은 37층에 위치하다보니 시공시 자재 및 인원이동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가능한 마감자재들을 한정치수에 맞춰 공칭재적을 진행해 현장에서는 설치중심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진 : 다원디자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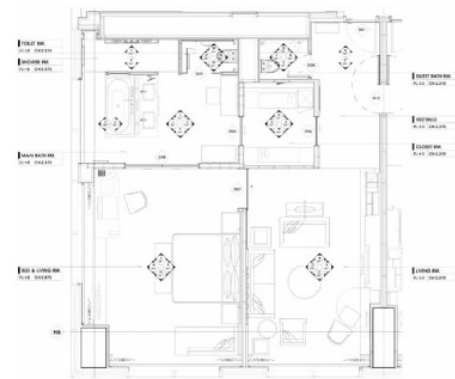


오픈 키친을 둘러싼 테이블 전경.



레스토랑 "37 그릴 & 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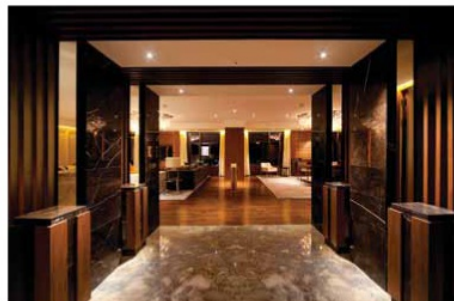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평면도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거실 및 침실.

6개의 공간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

디럭스룸 4배 규모로 서울의 타 호텔과 비교시 큰 면에 해당된다.  
편리한 작업공간과 애플 기법의 멀티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비즈니스와 여가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펜트하우스 스위트 입구 경  
엘리베이터홀(사진 왼쪽)  
거실 및 욕실(사진 아래)

